

# 예술로 위로를...공연예술축제 '그라제'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가을에 선보이고 있는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가 오는 10월 1~5일 닷새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과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축제 열흘 전 개최가 취소되면서 아쉬움이 컸던 만큼 더욱 새롭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찾아가고 있다. 3회를 맞는 올해 축제의 주제는 '위로! 위로!'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 힘든 시기를 모두 함께 극복하고 더 높이 비상하자는 의미의 '위로(1)'의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광주시립예술단, 민간예술단, 지역예술단이 함께 참여해 클래식, 발레, 연극, 국악, 대중음악 등 총 24회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발레단, 창극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 단체가 참여한다.

시립발레단 특별기획공연 '빛의 정원 365'를 시작으로 시립교향악단 '금관양상벌' (1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The Beatles and BTS' (2일), 시립창극단 '그라제 국악 한마당' (3일), 시립국악관현악단 '리브 콘서트' (4일), 시립합창단 '해 저무는 시간, 감성으로' (5일)를 잔디극장에서 공연한다.

민간예술단체는 회관 개관 30주년 기념공연인 세계 유일 탱고양상벌 '아스트로 피아졸라 퀸텟 내한공연' (4일)과 같은 대형 공연을 비롯해 클래식, 뮤지컬, 가족 음악극,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팀으로 구성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셀라 라게를뢰프'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



세계 유일 탱고양상벌 아스트로 피아졸라 퀸텟.

## 내달 1~5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야외무대 아스트로 피아졸라 퀸텟·빛의정원365 등 클래식·발레·국악·뮤지컬·대중음악 다채

'트롤의 아이' (1~2일)를 비롯해 TIMF 양상벌의 가족 음악극 '피노키오의 모험' (3일), 싱어송라이터 하립과 함께 음악으로 떠나는 아프리카 여행 '아프리카 오버랜드' (5일), 유쾌한 락 뮤지컬 '프린지' (1~4일)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지역예술단체는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 타악그룹이나포를 비롯해 환경 퍼포먼스 그룹 유상통 프

로젝트가 관객참여형 공연을 펼친다. '찾아가는 아프리카 음악과 춤의 여행' (2일), '싸운드 셔커스' (3일), '체험형 공연-리듬의 정원' (4일) 등 아프리카 전통 리듬에 춤과 극이 어우러진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그라제 축제에서 3년 연속 선보이는 인기 프로그램인 '버블 타이거의 버블 매직쇼'의 환상적인 비눗방울 퍼포먼스를 매일 즐길 수 있다.

축제 첫날은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개막일인 10월 1일 시립발레단은 '빛의 정원' 공연에 앞서 두 번의 오픈 클래스를 연다. 첫 번째 오픈 클래스에서는 발레단 연습실을 방문해 단원들과 함께 발레 기본동작을 체험해보고, 발레에 대한 해설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참가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10명 한정한다. 두 번째 리허설 오픈 클래스에서는 공연이 완성적으로 무대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10월 4일에는 타악그룹 아나포의 체험형 공연 '리듬의 정원'에서 전통 타악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선착순 30명 참여한다.

공연 관람료는 잔디극장은 전체 무료이며, 소극장은 1~5만원이다. /이연수 기자

## 익숙한 소재 속 다른 이야기 '눈길'

제12회 광주여성영화제 단편공모 본선진출작 선정 11월 9~14일 광주극장·독립영화관 등서 상영·시상

광주여성영화제(집행위원장 김채희)가 제12회 단편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12편을 발표했다.

선정작은 ▲이경호·허지는 감독의 '행인' ▲왕희승 감독의 '열연' ▲전재연 감독의 '퇴직금' ▲이탁 감독의 '불모지' ▲홍민기 감독의 '봉합' ▲방현정 감독의 '뿔' ▲김지원 감독의 '정글' ▲이영웅 감독의 '심부름' ▲백시원 감독의 '찢꼭지 3차대전' ▲신유정 감독의 '4단지에 사는 여자' ▲송예찬 감독의 '마리아와 비올레' ▲남순아 감독의 '해피해피 이혼 파티'다.

예심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선을 넘는' 이야기를, 영화적 소재의 클리셰를 따르는 영화들이 아닌, 같은 소재임에도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들을 위

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 저소득 계층 남매 이야기, 편견과의 투쟁 등 익숙한 소재에서도 기존과 다른, 비극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코믹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영화들이 많았다는 평이다.

예심은 광주독립영화관 이세진 프로그래머, 영화학자 정주미, 동네책방 숲 책방지기 안혜민, 광주 민우회 활동가 정지윤, 12회 광주여성영화제 프로그래밍장 이다혜가 진행했다.

본선 진출작들은 오는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옛새간 광주극장, 광주 독립영화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에서 진행되는 영화제 기간 상영되며, 총 3개 부문(권 작품상, 권 특별상, 권 관객상)에서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이경호·허지는 감독의 '행인'

## 춤·노래·연주로 풀어낸 여성의 삶

ACC, 내달 3일 예술극장서 '마디와 매듭' 무용공연 판소리·서도민요·정가...다른 장르 소리꾼 한 무대

우리네 어머니와 할머니는 딸, 아내, 엄마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 냈을까? 윗세대 여성의 삶을 24절기의 변화에 따라 춤과 노래, 음악으로 풀어낸 무용 선보임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오는 10월 3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무용 '마디와 매듭'을

공연한다.

'마디와 매듭'은 근현대사 속 개인의 삶의 여정을 짚어내며 잔잔하지만 묵직한 감동을 선사해 온 배삼식 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실험적인 현대음악에서부터 연극, 음악극, 오페라,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는 최우정 작곡가가 음악을 맡았



공연은 24절기 중 춘분(春分), 청명(淸明), 곡우(穀雨), 입하(立夏), 소만(小滿), 망종(芒種) 등 여섯 절기의 시간을

담았다.

한국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의 반주에 맞춰 여섯 절기에 걸쳐 펼쳐지는 여인들의 생활상에 담긴 움직임과 소리를 춤, 노래(정가·서도민요·판소리), 한국 전통 악기 및 서양 악기로 그려낸다. 판소리, 서도민요, 정가의 서로 다른 장르의 소리꾼들이 함께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무용수 박기량, 김단우, 장서이, 김정수, 한지향과 소리꾼 김나리(정가), 김무빈(서도민요), 조아라(판소리)가 출연하며, 박명규(대금), 이승훈(플리네티), 김준수(타악), 황경은(건반)이 연주를 맡았다.

공연은 무료이며, ACC 누리집에서 입장권을 예약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 지친 마음 위로하는 시인들의 문학수업

대동문화재단, 작은도서관 무들서 '일상문학산책'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시와 소설로 다독이는 문학수업 '일상문학산책' 세 번째 과정이 30일부터 광주 동구 작은도서관 무들에서 열린다.

'일상문학산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독서이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기관인 대동문화재단이 강의를 기획, 운영한다.

밀레니얼 세대에 속한 젊은 시인들이 같은 청년세대에게 문학을 매개로 위로와 공감을 준다는 취지로 지난 6월부터 운영

을 시작했으며, 수강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다희 시인, 김복희 시인에 이어지는 세 번째 과정은 색다른 언어 감각으로 문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김연덕 시인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과정에서 시인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 외국문학 작품을 소개한다. 5주간의 독서 여정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읽기로 가능해지는 사랑, 사랑으로 가능해지는 읽기'라는 즐거운 고민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 상무지구 FUNIS

#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폼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FROM PARK 시스템 스크린골프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폼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 FROM PARK 시스템 스크린골프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 FUNIS

##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